

보도 일시	2022. 5. 13.(금) 16:00	배포 일시	2022. 5. 13.(금) 16:00
담당 부서	예보국 예보정책과	책임자	과장 조남산 (02-2181-0492)
		담당자	사무관 박익태 (02-2181-0493)

여름철 기상재해, 방재기상대책으로 막는다

- 기상청장,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대비 방재기상대책 점검 -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('22. 5. 15.~10. 15.)에 대비하여 5월 13일(금) 국가기상센터에서 '2022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'을 개최하였다.
 - 이번 선언식에서는 호우, 태풍, 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, △철저한 실황 감시 및 분석 △재난 대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△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등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였다.
 - 올해는 특히 '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'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, 물관리 기관 간 협업과 근로자의 폭염 피해 예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- 기상청은 5월 초에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작년 주요 사례별* 예·특보 생산 시나리오와 대국민·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였고, 지방청·지청별 시·도, 물관리 기관 등 지역 관계기관과 별도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.

*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: 남해안 집중호우('21. 7. 5.~6.), 태풍 오미스('21. 8. 23.~24.)

- 약 2,600만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6월 1일(수)부터 9월 30일(금)까지 △항공기 △선박 △기상관측차량 등 이동형 기상관측장비와 연구용 장비 등 관측장비를 총동원하여 위험기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심층분석을 수행한다.
- 물관리 기관의 홍수예보와 댐 운영 지원을 위해 홍수 특별대응반을 구성하여 △댐 유역별 맞춤형 예측강수량과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제공하고 △기상-물관리 합동 토의를 운영하여 홍수피해 저감을 지원한다.
-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큰 취약계층과 건설, 택배·배달 분야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자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한 폭염 영향 예보 전달체계를 확대하여,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요령을 전파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경감 대책을 강화한다.
- 더불어 △어려운 기상용어를 대중적인 언어로 순화하거나 △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(주 1회 이상/연중) 등 예보 소통을 강화하여,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전달한다.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매일, 매년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위험기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, 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각오를 밝혔다.
- 붙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 사진



| 주요 방재기상대책 보고(가운데 박광석 기상청장) |



| 주요 방재기상대책 보고(왼쪽 세번째 박광석 기상청장) |